

대한상의, M&A 컨퍼런스 9월13일 개최

대한상공회의소는 9월13일 14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M&A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.

행사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의 축사를 비롯해 김영민 씨티그룹 증권이사, 이상하 두산전무, 안성훈 효성 상무, 박성우 모건스탠리 전무 등 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기업 경쟁력과 해외 M&A 추진경험과 성공요인을 발표하며,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변호사가 M&A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.

또 종합토론에서는 안광명 재경부 경제협력국 심의관, 윤영선 산자부 외국인투자 기획관 등 정부인사들과 박철준 베인&컴퍼니코리아 대표, 오상봉 산업연구원장,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변호사, 최도성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해외 M&A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7/09/10>